



# 오클랜드

##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사목회장: 김경년 베드로 오일공-육구삼-공구이공

평협회장: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돌-이오팔공

선종회장: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 2023년 우리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 (녹) 연중 제20주일

2023년 8월 20일 (제2045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E-mail: standrewoak@gmail.com

TEL 510-553-9434

홈페이지: [WWW.OAKCC.ORG](http://WWW.OAKCC.ORG)

근무시간: 수(9am~5pm) 목(6pm~9pm) 토/일(9am~5pm)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성 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영어 미사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4시
	평일 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 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이사야서 56,1.6-7

화답송 시편 67(66),2-3.5.6과 8(◎ 4 참조)

-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거래들을 이끄시니, 거래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1,13-15.29-32

복음환호송 마태 4,23 참조

-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15,21-28

영성체송 시편 130(129),7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성가 ]	8시	입당 480	봉헌 213	성체 151	파견 4		
	11시	입당 21	봉헌 215	성체 180, 188	파견 29		
연중 제20주일	8월 20일(일)		8월 22일(화)	8월 23일(수)	8월 24일(목)	8월 25일(금)	8월 27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명국 바오로	유인웅 다투	정미경 말가리다	이명련 파트리샤	장희숙 루시아	이명련 파트리샤	성령 기도회
독서	정기환 레안델 정미경 말가리다	최대연 다니엘 이정연 골롬바	정기환 레안델	윤춘주 세레나	이기자 요안나	이명란 아네스	성령 기도회
제의방	이선미 에스터	정인경 가브리엘라	이은자 마트로나	윤춘주 세레나	장희숙 루시아	정인경 가브리엘라	허홍숙 세실리아

■ **예비신자 교리 교육**

- 매주 주일 오전 10:00~10:45, 교육관 106호

■ **토요일 미사전례 안내**

- 8월 27 (토) 11시 미사 : 성령기도회

■ **모임 및 회의**

- 콘트라코스타 구역 : 8/20(일) 오후 1시 교육관 107호
- 오클랜드 구역 : 8/20(일) 오후 1시 교육관 106호
- 프리몬트 구역 : 8/20(일) 오후 1시 교육관 201호
- 유니온구역: 8/24(목) 오후 5시 30분 박로사 댁
- 캐스트로밸리 구역: 8/26(토) 오후 5시 주마리아 댁
- 샌리엔드로 구역 : 8/27(일) 오후 1시 교육관 106호

■ **성모회 모임**

-일시 및 장소: 9/3(일) 교중 미사 후 교육관 107호

■ **2023년 하반기 성서사십주간 신약 개강**

- 기간 및 시간: 8/27~12/10, 매 주일 저녁 7시-9시
- 대상: 성서공부를 원하는 모든 교우
- 방식: Zoom (온라인 화상)
- 수강비: \$70 (교재 \$20+ 수강비 \$50)
- 신청: 권 마리크리스티나 수녀 또는 사무실

■ **황금빛인생 일일 행복크루즈여행**

- 날짜 : 9월 5일(화), 4시간, 베이지역 크루즈여행
- 대상 : 70세 이상 어르신  
(한쪽 배우자가 70세 미만일 경우에도 신청가능)
- 회비 : 없습니다.
- 모이는 시간과 장소: 오전 10시 30분까지  
2394 Mariner square drive Alameda Ca 94501, 오세요.
- 신청마감일: 8월 20일(일) (이후 신청하시면 가실 수 없습니다.)
- 신청 : 황금빛인생위원 이선미에스더(오일공-구일구-육오육칠)  
사목회총무 유인웅다윗(오일공-오파오-칠육삼팔)

■ **공동체 기도 지향**

박영자 마리아, 심연자 데레사, 박영자 클라라, 조상희 마리아, 송정현 헬레나, 신정열 올리엠타, 정연중 비오, 최라파엘, 전옥분 크리스티나, 홍윤표 베드로, 황정숙 말찌나, 권주선 다니엘, 천혜수아네스, 브루스아론조 발바라

■ **성경 통독**

- 8월 집회서 (읽기분량 : 집회서 44,1 - 48,25)

■ **미사전례복사자 모집**

- 미사전례복사자를 모집합니다. 사무실에 신청해주세요.

■ **성물방 봉사자를 구합니다. 사무실에 연락주세요.**

■ **한국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사무실에 문의해주세요.

■ **이스라엘 성지순례(11월 8일 출발) 모임**

- 일시: 8월 20일(일), 오후 1시, 성당  
- 이스라엘 성지순례 설명회 및 이스라엘 성지 안내

■ **밥나눔 안내**

- 오늘 성령기도회에서 전 신자 분에게 점심을 대접합니다.  
- 8시 미사 참례자에겐 떡나눔이 있습니다.  
- 문의 : 송성숙아네스자매님(오일공 - 삼칠오 - 오일사칠)

■ **한국학교 안내 2023 - 2024 가을학기 등록안내**

- 개강일 : 8월 19일(토) - 연령 : 4세부터  
등록비(1년) : \$ 320 - 문의 : [standrewkimks@gmail.com](mailto:standrewkimks@gmail.com)

■ **대건회 하계 캠핑**

- 일시: 9/15(금) 오후 6시 ~9/16(토) 오후 8시  
- 장소: Anthony Chabot Camp Ground, RV site 7.

■ **안나 요아킴 야유회(9/16, 토)**

- 일시: 9/16(토) 오전 11시~오후 4시  
- 장소: San Leandro Marina Park

■ **S.F 성 마이클 한인 성당 한마음 골프대회**

-일시 및 장소: 9/30(토), 01:00 Crystal Springs Golf  
-참가비 및 접수: 참가비 \$150, 사무실로 접수

■ **안나 요아킴 라인댄싱 교실**

-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오후 1:00~3:00

■ **안나 요아킴 액세서리 만들기 교실**

- 매월 3째주 토요일 오후 1시 교육관 106호

■ **본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파일오)

■ **오늘 헤어컷 봉사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그라시아(8/21): 김정옥, 손순옥
- \* 비오(8/21): 윤장익, 이기하, 장재용
- \* 로사(8/23): 이옥경, 정경아, 정화봉, 박민자
- \* 파트리샤(8/25): 이명련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 주일미사의 의미

구원받는다든 것이 나중에 죽어서, 저 세상에 가서야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구원이 그런 것만이라면,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고통스럽게 살다가 죄 중에 죽었다고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원하기만 하시면 그들을 모두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몸소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해방을 직접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루카 17,21)고, 보이지 않는 저 하늘 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 한 가운데에 있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시간, 지금 여기서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느님께서서는 왜 우리에게 계명들을 주셨을까요?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계명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왜 우리더러 선하게, 의롭게, 자기 욕심 따라 살지 말고 희생하고 내어주면서 살라고 하셨을까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절제하며 사는 것이 하느님 당신께 득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성사 보러 오시는 신자들 모습은 보면 마음에 감동이 일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의 고백을 듣노라면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고해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성사 본지 몇 달 되었습니다. 주일미사 세 번 빠졌습니다.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고해성사에 임하는 긴장과 부담 때문이라 이해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주일미사를 꺾은 것만이 죄가 될까요? 단순히 신자의 의무, 지킬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죄가 되는 것일까요?

혹시 이런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예닐곱 되어 보이는 아이가 주위를 뛰어다니며 놀고 있고, 젊은 엄마가 밥그릇에 숟가락을 들고 그 뒤를 쫓아다니는 모습입니다.

노는 데에 정신이 팔려 있는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이거 한 입 먹어보라고, 정말 맛있겠다고,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아이를 어르며 애쓰는 엄마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엄마들이 왜 그렇게 자기 아이에게 밥을 먹이려고 애를 쓸까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하루 삼시 세끼 밥 먹는 것이 의무라서? 그것이 인간의 도리라서? 아닙니다.

주일미사 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지켜야 할 의무라서가 아니라, 주일미사가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초대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한 주간을 세상에서 애쓰며 지낸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그래, 그렇게 힘들게 지내느라 애썼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나한테 와서 좀 쉬어라. 와서 내 이야기도 좀 듣고 또 내 살과 피도 받아먹고 마셔라.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기운 내서 행복하게 잘 지내라!’ 하며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느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하느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이고 초대인 것이죠.

어느 출판사였는지, 글 쓰신 분이 누구인지도 기억나지 않지만, 인용한 글임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주일미사의 고백’입니다.

주님,

고백하겠나이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더 놀고 가라는 말에 못 이기는 척 주저앉았습니다.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서니 이미 당신의 잔치는 마지막 상까지 물린 뒤였습니다.

다음 주일 미사에 성체도 모시지 못한 채 앉아 있으려니 창피했습니다.

주님,

부끄러워서 눈을 감고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해주었더니,

주일 미사도 빼먹느냐고 치도곤을 치실 줄 알았는데 당신은 눈물짓고 계시더군요.

지은 죄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쭈뼛거리고,

당신이 사랑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도 영하지 못하는 못난 저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에 울고 계시더군요.

“희망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에서 얻는 모든 기쁨과 평화로 채워 주시어,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로마 15,13)

[가톨릭신문, 2017년 5월 21]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39 명	176 명	215 명

  

주일 헌금		교무금	Bishop's Appeal	감사 헌금	성소	선교	빈첸시오	황금빛 인생
8시	교중미사							
[교무금] 김영희(9), 전문자(8), 허수원(8), 조덕행(7-8), 유홍식(7-8), 정수영(6-8), 김영순(6), 김원일(7-12), 한치용(7-8)				김원일				유낙양

+ 미사지향

날 짜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지 향	봉 헌 자
8/20(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8/20(일)	생	천다니엘/아네스	민제노베파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 /아네스		생	이현경 보나	이에스터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생	권영현 바실리오	김영선 안젤라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생	차아름 루시아	차영화 리디아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생	김병휘 안토니오	김스테파노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생	심데레사	김젬마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넷스가족		생	이영기 마태오	김제마
	연	조숙자 바울라	조진행 바실리오				
	연	박인준 아브라함	박로사가족	8/22(화)	연	최정자 쟈마	이동재 안토니오
	연	민정희 클라라	민제노베파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옥제병 요한	민제노베파				
	연	김마르코	가족				
	연	부흥신 마티아	가족				
	연	김옥희 아가다	조모나셀라	8/23(수)	연	윤천호 바오로	윤세레나
	연	최순일 요셉	강수산나		생	주임 신부님	주정희 마리아
	연	최순일 요셉	가족		생	김정옥 그라시아	이야고보/카타리나
	연	김정탁 요셉	가족				
	연	김화순 안나	가족				
	연	김윤하 암부르시오	이종규 미카엘				
	연	John Blain	이영길 안드레아	8/24(목)	연	장대식 바오로	장루시아
	연	한서연 수산나	류삼수		생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신부님	이에스터
					생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신부님	주정희 마리아
	생	신율리안나	김젬마				
	생	이영자 마리아	김젬마				
	생	발바라 부르스 아론조	전데레사	8/25(금)	생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신부님	정요한/가브렐라
	생	안아네스/ 박시몬	전데레사				
	생	양랜디/전아네스	전데레사				
	생	전소영 마리아	전데레사	8/26(토)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생	전석영 스텔라	전데레사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생	박호영 헬레나	이베로니카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생	이근수 가정	조요안나		연	유춘성 데레사	가족
	생	장민우	송아네스		연	송성호 아벨	송아네스
	생	김광석 베드로	김위 데레사		생	김동순 골롬바	송아네스
	생	주임신부님	김정임 마리안나				
	생	김미나	김정임 마리안나				

<p><b>대 건 한 의 원</b>  <b>한의학박사 이 준</b>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b>조미정 공인회계사</b>  <b>세금보고 및 회계감사</b>  <b>Business Consulting</b>          ☎ (925)803-0200          Fax (925)803-0204</p>	<p><b>광고 문의</b>  <b>성당 사무실</b>          510-553-9434</p>	<p><b>J &amp; J Auto Service</b>  <b>자동차 정비와</b>  <b>바디수리</b>          ☎(510)236-0550  <b>강 요 한</b></p>	<p><b>광고 문의</b>  <b>성당 사무실</b>          510-553-9434</p>
--	---	--	---	--